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18일(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흠어져 있는 지체들과 고향에 오가는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아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 사랑방공동체 제 7차 정기 총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입니다.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2일(일)~23일(월)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오늘 정태일 목사님은 예담교회 주일 설교와 오후 특강으로 출타하셨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 사랑방 (명절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석용범 집사님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7 호

2026년 2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설날을 앞두고서

민족의 명절인 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세시풍속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요즘에는 친족이 함께 모이는 대가족 중심의 명절보다, 함께 생활하는 가정 단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진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추석과 설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모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보다는, 실제 생활을 중심으로 삶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세대가 가장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명절에도 점차 가정 중심으로 보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생활의 편의는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리함은 주변으로 쉽고 빠르게 번지는 법이지요. 전통적 가치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기준이 되면서, 삶의 양식 역시 보다 쉽고 수월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왜 그토록 막히는 길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자라는 차편을 어렵게 구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런 변화와 차이는 결국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갑니다. 설령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서로 연락하지 않고 남처럼 생활했다고 한다면, 공동체로서의 의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서로가 혈연으로 묶여 있고,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서로를 한 공동체로서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친족이 법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이전에는 농경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에 따랐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을 중심으로 친족들이 근처에 함께 모여 살았고,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는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결국 서로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또 내면적으로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핵가족화 되면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해체되었다면, 이제는 그 가정마저도 점차 해체되어 1인 가구와 같은 초핵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해체의 밑바탕에는 현재의 삶의 양식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연속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중요한 면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누군가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관계의 끈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끈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공동체 역시 소리 없이 와해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개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 배려하고 돕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해 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소속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 번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돌아보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감사한 설날

새해의 시작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보낸 명절과 지금의 명절은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은 항상 사람들로 부쩍부쩍하고, 기분이 항상 신나있었습니다. 앞집, 옆집 둘러보면 한복 입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을 많이 보이는데 다들 우리 집 같이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핸드폰도 많이 없고, 인터넷은 컴퓨터로만 할 수 있을 때인데 놀게 많지 않지만 매번 보는 성룡영화만 봐도 항상 즐거웠습니다. 편하고, 재밌는 건 현재이만 그보다 어린 시절이 좋다고 느끼는 건 지금보다 많이 모이는 친척들안에서 이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명절은 다들 비슷했다면 요즘 명절은 각 집마다 다 다르단 걸 뉴스를 보고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소식이 인천공항에 몇 백만 명이 모였다, 간소화된 제사 또는 제사를 안하는 가정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설 명절에 다같이 여행가는 집, 중간에 숙소 잡고 다같이 모였다 흠어지는 집, 제사 안 지내는 집, 그냥 집에 있는 집 등 이제 명절은 각 집마다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어린 시절 예뻐해 주셨던 어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형제들을 마냥 예뻐해 주었던 사촌 형, 누나들도 이제는 대부분 뿔뿔이 흠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다같이 있던 명절이 그림기도 하고, 이제 명절 준비를 우리 집에서 하기에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같이 좋은 명절을 위해 지내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동안 한국의 명절은 엄마들이, 여성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했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먹고, 지내려면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명절마다 전을 부치는데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듭니다. 행복한 명절이 있고, 힘든 시기를 겪는 명절도 있습니다. 여러 명절의 모습 중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을 위한 감사의 명절은 항상 가족 간에 기쁨이 가득한 명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모두 감사가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53장, 419장

성 경 : 요한계시록 21장

말 씬 :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혼란스런 세계속에 세계이 질서를 담당해야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계평화와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에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위해 길을 가고 있는 흠어져 있는 한공협에 속한 공동체들이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2) 철거 증축 작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주 중에 교육관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고 멧쟁이들과 함께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른 나무도 정리하고 뿔감도 쌓아 놓았습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니 공동체 마당이 한결 환해 보입니다.

많은 손길들이 보태져야하는 일이라는 것을 세삼 느낍니다.

설 명절을 맞아 식구들이 고향에 다녀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셋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93, 312 / 384

기도 : 정영옥 집사

성경 : 시편 78편

제목 :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1-8 대대손손 전할 것

해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세대에 전해야 한다.

적용: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

9-64 역사(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땅)속에서 기억할 것

해석: 에브라임의 죄(하나님을 잊고, 거역하고, 시험 한 것)는 반복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 직접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적용: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자.

65-72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해석: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적용: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시나요? 저는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피로한 순간 하늘을 보면, 광활한 시야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밤에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은 바탕에 콧코 박힌 별들이 참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성 같은 밤하늘 공연이 있는 날에는 꼭 체크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은 작은 우주 먼지들이 서로 겹쳐 하나의 거대한 빛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던 먼지와 가스 구름이 수백만 년에 걸쳐 모이고, 마침내 별이 탄생합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 먼지가 별이 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 때문인지 요즘 자신을 우주먼지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모두를 사로잡을 별이 될, 와룡 같은 존재로 말이죠. 저도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바로 별은 하나의 우주먼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먼지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나의 별을 만드는데 태양 질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의 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주먼지들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느 위대한 인물도 역사 속에 홀로 서 있지 않다. 언제나 그들을 만든, 그들을 닮은 누군가가 함께 서 있다.'(윤은성, '만남') 이 말처럼 한 명의 스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탄생합니다.

2월은 특히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있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3년, 6년 보낸 시간을 정리하는 졸업식이 있었고, 오늘부터는 가장 오래된 인연들과 만나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2월 말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나, 조금 들여다보면 수많은 관계들의 만남이자 교차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관계들을 소중히 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선생님, 가족 한 분 한 분이 모두 여러분이라는 별을 만드는 소중한 우주먼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빛나게 할 소중한 먼지 한 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킬, 여러분을 닮아 있는 관계를 적립하고, 우리 모두 어두운 밤하늘을 밝힐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사랑방공동체학교 졸업식이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의 여러 감정 때문에 나오는 눈물 보단 다들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많은 졸업식이었습니다. 꼬꼬마 동생이었던 아름이와 지음이와 최고 선배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운 친구들이 어린이학교에 가서도 잘 지내리라 믿습니다.

수요일에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을 보고, 체험도 하고 왔습니다. 멀리 있는 예술의 전당에 가서 세계의 다양한 동화책 작가들의 그림도 만나고, 활동 선생님들과 아주 멋진 그림과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게 더 서로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설 명절을 책을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아 윷놀이도 배워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개겉웃모가 아직 어렵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윷을 아주 신나게 던지고 놀았습니다. 낙이 나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식은 했지만 꾸러기학교가 한 주간 더 나오기에 졸업생 지음리와 아름이가 놀러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 정말 잘 지내라고 송별회를 했습니다. 서로 같이 놀아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고 말하며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겉은 겨울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봄이 준비 되고 있듯 어린이 학교도 겉은 방학이나 보이지 않게 새학년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반을 나누고, 수업 분담을 하고, 시간표를 짜고, 보직을 정하고.. 방학숙제를 펼쳐 놓고 얼마만큼 했는지 열심과 수행을 평가합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누가 보아도 멋지게 달성한 친구를 이 밖에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린이 학교에는 꼼꼼하신 교감 교무 선생님이 계셔서 놓치지 않고 부족한 교사 수에도 학교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공동체 학교 전체에 교실 이동이 불가피해서 어린이 교무실이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고 한창 내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등을 교체하고 전선을 손봐주시고 가구를 고쳐주시는 목공실 소장님도 계시고 에어컨 정비를 해주시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모두 다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통하여 어린이학교를 지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봄이 오면 활짝 핀 꽃처럼 피어날 어린이 학교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점차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봄학기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멋쟁이들은 설날을 앞두고 마음이 들뜩니다. 그런 와중에 검정고시나 해외문화체험을 준비하는 멋쟁이들의 표정은 부담감이 섞여있습니다. 학습을 진지하게 이어갔던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교육관 공사에 힘을 보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재들을 정리하거나 치우고, 주변에 어질러진 잔해들을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학교와 공동체의 일에 함께 하고 나니, 우리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025년 마지막 가족회의를 하면서, 2025년도 모든 학사과정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설연휴 동안 멋쟁이다운 모습으로 인연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상기하며,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입학 및 개학식에 보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95 : 6-7a
27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36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베드로후서 1 : 16-21 설교자
417 디아코니아사랑방
“ 노 사도의 마지막 편지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6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양기모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노 사도의 마지막 편지

노 사도의 편지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순교를 앞둔 시점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투박한 손이었지만,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목격한 영광 베드로는 젊은 시절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던 압도적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신비한 체험은 강렬한 확신을 주었고, 박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체험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욱 앞세웁니다. 신비한 체험은 번개처럼 강렬하나 찰나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말씀의 등불을 굳게 붙잡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혜라 집사